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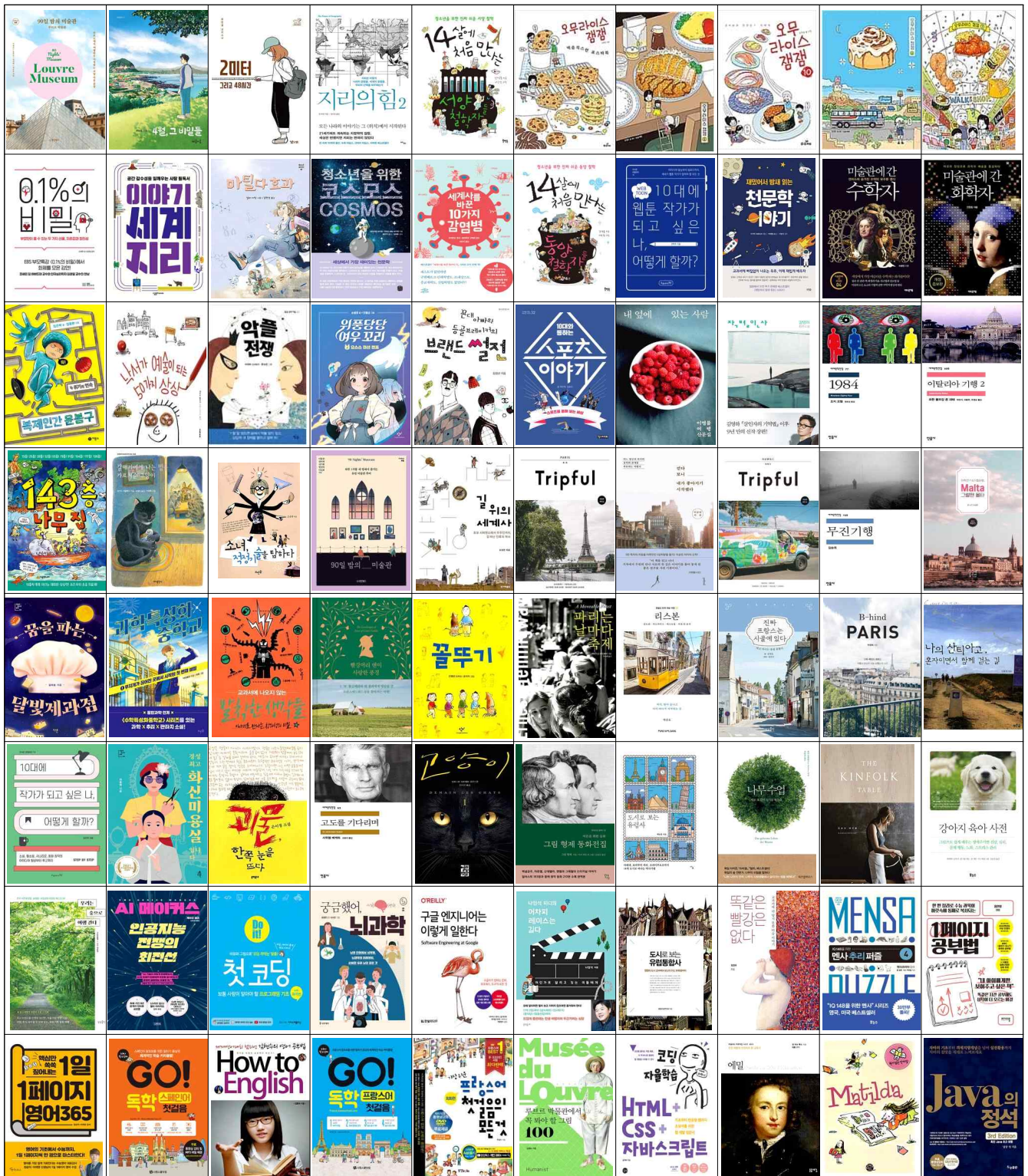
북 큐레이션 - 여름방학 추천 도서	본교 도서관 소장 도서 기준
---------------------	-----------------

책표지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책 소 개
	모범생의 생존법	황영미	문학동네	‘상적시험 성적에 희비가 엇갈리는 와중에도 연애, 진로, 친구 관계 문제로 머리를 싸쥐는 고등학교 새내기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럭저럭 괜찮은 성격에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모범생’이라 일컬어지는 듯 청소년들이라면 깊이 공감할 소설. 본격적인 수험 생활에 진입하는 시기, 열일곱 살의 봄을 맞이한 아이들의 일상 분투기를 만나 보자.
	지리의 힘2	팀 마샬	사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극화 체제로 전환된 세계에서 광범위한 파급력을 볼 수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그리스, 터키, 사헬, 에티오피아, 스페인, 우주까지, 즉 지구 아래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머리 위 저 높은 곳 우주까지 10개 지역을 다루고 있다.
	세계단편소설 40	0. 헨리 외	리베르	「노인과 바다」, 「어린 왕자」, 「변신」, 「아큐정전」 등 필독 중편 소설들도 전문을 실었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문학 교과서 수록 빈도, 문학사적 의의, 예술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술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관문이 되면서 문학은 이제 교양을 넘어서 필수 과목이 되었다. 이 책에는 살아가는 동안 꼭 읽어야 할 세계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과학으로 생각하기	임두원	포레스트 북스	타고난 스토리텔러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인가요?” 처럼 엉뚱한 질문부터, “눈은 왜 3개가 아니라 2개 인가요?” 처럼 익숙한 일상에 따지듯 거는 질문, “영원한 삶은 축복일까요?”, “사람은 왜 겸손해야 하나요?” 등 일상의 태도를 넘어 인생을 고찰하는 철학적 질문까지 총 42가지 궁금증을 탁월한 입담으로 풀어가며 과학의 본질에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순례 주택	유은실	비룡소	코믹 발랄한 캐릭터 설정과, 순례 주택을 둘러싼 한바탕 대소동은 기발하면서도 유쾌하다. 약간은 막 가는 수렁이네 네 식구가 줄땀 뻗은 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옛 여자친구의 빌라 ‘순례 주택’으로 이사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온실 밖으로 나와 세상에 적응하게끔” 훈련시켜 주려는 순례 씨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다이버	단요	창비	『다이버』는 2057년 홍수로 물에 잠긴 한국을 배경으로 물꾼 소녀 ‘선율’과 기계 인간 ‘수호’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펼쳐지는 물속 세계를 뛰어나게 그렸으며, 십 대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감동을 전한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민음사	본인의 자전적 경험이 듬뿍 녹아 들어간 성장소설로 신학교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썼다. 소년 한스 기벤라트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며 마을브른 신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끊임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가족과 고루한 신학교의 종교적 엄숙주의 아래서 점점 마음이 병들어간다. 급기야 신경쇠약증에 걸려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총, 군,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1998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총, 군, 쇠>.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각 대륙의 문명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인종적, 민족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를 때문이라는 것을 생태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을 동원해 설득력 있게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 책장을 바라보는 것도 독서다.

[독서력/웅진하우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따끈따끈, **신간 도서**  
책장을 보듯이 겉표지, 책 제목만 보아도 독서입니다.



「시흥가온중 도서관 가온나래」